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과 관련변인*

Coping Strategies of Adolescents: Predictor Variables

정 문 자**

Chung, Moon Ja

정 현 숙***

Chung, Hyun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dolescents' coping strategies to various stressors, and to examine factors that related to their coping strateg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55 middle school and 398 high school students.

Adolescents' coping strategy was examined with a revision of the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 (McCubbin, Olson, & Larson, 1982). Quality of life was measured by an 11-item scale selected from Quality of Life (Olson & Barnes, 1982) in the areas of family, friend, relationship with relatives, and health and communit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was divided into two dimensions of open communication and problem communication, using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Barnes & Olson, 1982). A measure of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was obtained by using selected items from the Self-Esteem Inventory(Coopersmith, 1967) and Self-Esteem Scale (Rosenberg, 1965).

Five types of coping strategies were found. These are "help from relatives/neighbors", "help from families", "self-help", "help from friends", and "help from relig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significant predictor variables for adolescents' coping strategies. Sex, age, quality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religion, and self-esteem were found important in predicting the types of coping strategies by adolescents.

* 이 연구는 1993년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었음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I.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지적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제2의 성장기로 청소년은 이 전환기 동안 겪게 되는 자연적이고 발달적인 변화로 인해 이미 많은 긴장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긴장에 대해 적응이 크게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청소년기 동안 청소년이 접하는 외적 환경은 이러한 긴장적응과 해결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특히 대학 입시와 관련된 현대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환경과 분위기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적응하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연령에 따른 발달적 과업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것 외에도 우리 특유의 문화, 사회, 교육적 여건으로 인해 다른 연령에 비해 더욱 많은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청소년은 청소년기 동안에 겪게 되는 발달적, 환경적 긴장요소들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할 때 비규범적인 행동이나 비행으로 자신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동안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긴장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개인적, 환경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일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라 하겠다.

영유아기와 아동기 동안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인적 물적 환경의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그 중요성도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발달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간과되어 자녀에 대한 가족의 사회화기능은 자녀의 아동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건강을 포함한 제 발달에 대한 연구는 타연령의 발달에 비해 비교적 이론적, 개념적이며, 연구의 범위나 깊이에 있어서도 그 폭이 좁으며, 특히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의 종류와 주변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예, 윤진, 최정훈, 1989; 전귀연, 최보가, 1993).

외국의 연구들은 청소년기의 발달에도 많은 가족적 변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Grotevant & Cooper, 1985). 예를 들면 Hurlock (1973)은 청소년 비행과 가족환경간의 관련성에 관한 문헌조사에서 가족상호간의 이해 정도, 자율성에 관한 갈등, 가치관의 차이, 부모의 결혼관계, 부모의 직업, 가족성원들의 역할개념, 가족외 타인의 개입, 가족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가족 기능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청소년 비행의 중요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행동양식은 가족의 사회적 과정과 구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Leigh & Peterson, 1986). 그뿐 아니라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가족외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의 폭을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과 가족, 그 가족이 포함된 사회는 청소년의 발달에 상호 의존적이며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이해는 발달하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청소년의 주요한 인적 물적 환경인 가족, 동료, 이웃, 지역사회,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연구함으로써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응책 연구는 극히 소수여서 그 결과를 아직 일반화할 단계가 아니며, 주위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 정도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긴장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긴장해결의 대처전략을 분석하고, 긴장과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적인 제 변인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

긴장을 경험하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긴장을 해소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생각해 내고 이를 행동으로 옮긴다. 긴장을 없애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인의 인지적 혹은 행동적인 반응목록이 대처전략이다(McCubbin & Patterson, 1986). 그러나 대처전략은 막연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긴장감을 주는 상황에 대해 단순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룬 개인의 긴장에 대한 반응양식이다. 대처전략은 주로 환경적 요구에 맞는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적, 외적 그리고 환경적 긴장에 대처해 나간다. 긴장에 대처하려는 노력은 긴장을 줄이거나 없앨수도 있으며, 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처전략은 긴장이 누적되어 생길수 있는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결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대처전략은 청소년기에 견고하게 발달된다. Vaillant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성숙한 방어보다 미성숙한 방어를 2배 정도 더 많이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대처 양식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성인기로의 성숙은 청소년기 동안 실험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Newman, 1979, 재인용).

청소년이 사용하는 다양한 자원중 개인적 자원으로서는 청소년의 성과 연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신비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하며(김애순, 윤진, 1987),

아동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직접적 문제 해결, 문제 중심적 공격, 문제 중심적 회피, 문제 중심적 울음과 같은 1차적 통제 방식보다는 사회적 정서적 지지, 감정중심적 울음, 감정중심적 공격, 인지적 회피와 같은 2차적인 통제양식을 많이 이용한다(윤유경, 1990; Band & Weisz, 1988).

또한 청소년의 성도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좌절 상황에 대처한다고 보고 하였다(윤진, 최정훈, 1989). 즉,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소극적이고 의타적이며 체념적인 대처방안을 보여주는데 반하여, 남자는 여자보다 더욱 정동적이며 직면적인 대처양식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가족내에 문제를 상의할 대상이 있을 때 더 건강한 대처 행동을 보였으며, 이는 가족내에서의 대화와 위기 관리, 갈등 해결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통로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성과 연령은 대처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도 청소년들의 대처전략에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의 여러 특성중 청소년들의 대처전략에 중요한 자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긴장시 사용하는 대처전략에 가족의 어떤 특성이 자원으로 작용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긴장과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표현되며,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고 가치롭다고 보는 정도를 나타낸다(Coopersmith,

1967). 그러므로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존경하며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것인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거부하고 멸시하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osenberg, 1965). Satir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인간의 기본욕구로 간주하여 에너지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인간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에너지는 역기능적인 대처방법을 순기능적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대처방법은 자아존중감의 수준과 관련이 있어, 자존감이 높을수록 좀더 건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처방식을 찾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송성자, 정문자, 1994). 그러므로 자아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는 청소년시기의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의 긴장시 이용하는 다양한 대처방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2)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기를 포함한 인간의 여러 발달 단계를 체계론적 입장에서 보면 개인과 환경은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행동은 행동인 동시에 반응이며 이런 관계를 통해 가족 또는 대인관계와 대물관계는 그 체계내에서의 구조와 기능을 상호변화시키며 발달한다. 특히 청소년기에 가정이라는 소단위의 사회 체계는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회 경제적 지위, 부모의 역할 및 문화적 수준등 가정의 구조적 요인은 청소년의 성장발달 중 특히 의식구조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모-자녀간의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의 의식, 부모의 자녀 양육, 부모의 가치관과 같은 과정적 요인은 청소년의 성격 및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과정적 요인이 지위 및 구조적 요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 동안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없으나 많은 연구들이 청소년기 동안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명희(1987)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일수록 청소년 문제 행동이 적게 나타나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일수록 청소년 문제 행동이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체감 탐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Grotevant & Cooper, 1985). 또한 이 경우, 김규원(1989)은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유형 및 만족도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많을수록 상호 개방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정 분위기가 화목하다고 느낄수록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보였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부모와의 개방적인 대화는 문제행동을 줄이고,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에 있어서 그들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갈등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대처전략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자녀간 의사소통의 내용과 의사소통의 양, 영향력등은 부모의 성, 자녀의 성,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Noller와 Callan(1990)은 자신의 관심 및 일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청소년은 어머니와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고,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그들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덜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Grotevant와 Cooper(1985)는 여자 청소년은 부모와의 모든 의사소통 영역이 정체감 탐구와 관련된데 반하여 남자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관련된 의사소통만이 정체감 탐구에 영향을 미쳤다.

민혜영(1990)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연령이

증가 할수록 남아, 여아 모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감소하였으며,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많았고,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의사소통을 하여 의사소통 양에서의 성차를 보고 하였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 장호선(1987)은 연령이 적을수록, 그리고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들이 부모와 더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이 청소년들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을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의 성과 연령을 통제한 연구가 필요하다.

3)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가족체계에 대한 Circumplex Model에서 Olson, Russel과 Sprenkle(1979, 1983)은 가족을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의 2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로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외부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인지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지를 뜻한다.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권력 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Minuchin(1974)은 스트레스가 종종 가족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건강한 가족은 스트레스에 더 적응적이고 융통성있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청소년기 자녀 관계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균형잡힌 가족 체계 내에서 작용할 때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Circumplex Model에 입각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본 민혜영(1990)의 연구에 의하면, 균형잡힌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이

극단적인 가족보다 더 적절한 기능을 보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였다. 또한 전귀연과 최보가(1993)의 연구에서도 응집성이 높은 가족 집단이 부모 자녀 관계에 가장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청소년들이 긴장을 경험 할 때 사회적 지지기반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대처전략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4) 주위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 정도

청소년과 가족 그리고 이들을 포함한 사회는 청소년의 발달에 상호 의존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의 주변 환경, 예를 들면 가족, 친구, 친척들과의 관계, 가족의 경제적 문제, 현재 사는 주거지, 학교생활, 이웃, 자신의 건강 등에 대한 만족은 자신의 대처행동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윤진과 최정훈(1989)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녀는 문제상황시 가정이나 학교, 사회, 기타 모든 사회적 연결망에서 상의할 대상이 있을때 정신건강이 더 좋았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학생보다 허약한 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동시에 바람직하지 않은 스트레스 대처양식을 보였다. 종교유무와 대처행동과의 상호관계성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덜 건강한 대처 행동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적 신앙이 스트레스에 관한 대처와 정신건강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청소년의 직업적, 교육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Gecas & Seff, 1990), 사회 관계망 속에서 성원간 긴밀한 의사소통, 신뢰감형성 등 자신이 지원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자아존중감을 유지시키

고,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Pearlin et al., 1981). 따라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가는 대처방식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긴장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전략의 유형은 어떠한가?

- 1) 이 유형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이 유형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긴장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대처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대처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주위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정도는 대처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생 355명(남학생 236명, 여학생 119명)과 고등학생 398명(남학생 209명, 여학생 189명)으로 총 753명이다. 이들은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된 서울시의 3개 중학교와 3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4개반, 2학년 6개반, 고등학교 1학년 4개반, 2학년 4개반이 무선적으로 표집되어 총 16개반에서 801명이 표집되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편부모인 가족과 재혼가족의 청소년 48명을 제외한 총 753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6종류의 질문지로 이는 청소년과 이들 부모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대처전략, 자존감,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지들이다.

청소년이 긴장을 경험할 때의 대처전략을 조사하기 위하여 McCubbin, Olson, Larson(1982)의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F-COPE)을 연구자들이 개정한 27문항을 이용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친척/이웃의 도움(요인 I, 9문항), 가족의 도움(요인 II, 4문항), 스스로 해결(요인 III, 6문항), 친구의 도움(요인 IV, 3문항), 종교적 도움(요인 V, 3문항)의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alpha=.83$, $\alpha=.78$, $\alpha=.71$, $\alpha=.66$, $\alpha=.70$ 이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김경연(1987)이 Coopersmith(1967)의 Self Esteem Inventory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합쳐 만든 것을 본 연구자들이 어휘를 약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이며, 요인분석결과 한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계수는 $\alpha=.88$ 이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와 Bell(1982)이 제작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II: FACES II)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4문항은 제외하였으며, 한 요인으로 묶어진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alpha=.89$ 이다.

청소년의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의 정도는 총 25문항으로 된 Olson과 Barnes(1982)의 삶의 질(Quality of Life-Adolescent Form)척도에서 안면타당도를 통해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청소년의 주위 환경에 대한 만족의 정도

를 측정하는 도구로 가족, 친구, 친척들과의 관계,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 현재 사는 주거지, 학교생활, 이웃, 자신의 건강에 대해 아주 불만족(1점)에서 아주 만족(5점)의 5점척도로 측정하며, 높은 점수는 일반적으로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이다. 요인분석결과 전체문항 모두 한 요인에 포함되었으며, 요인의 신뢰도는 $\alpha=.85$ 이다.

부모-자녀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2)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지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와의 긍정적, 부정적 의사소통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요인분석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두 문항은 제외되었으며, 긍정적 의사소통(11문항), 부정적 의사소통(7문항)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높은 점수는 부모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아버지와의 긍정적, 부정적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각각 $\alpha=.91$, $\alpha=.72$ 이며, 어머니와의 긍정적, 부정적 의사소통의 신뢰도는 각각 $\alpha=.92$, $\alpha=.70$ 이다.

3. 조사절차 및 분석방법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753)*

변인	빈도(명)	%	변인	빈도(명)	%	빈도(명)	%		
성별	남	445	59.1	부모의 학력	중졸	114	12.0		
	여	308	40.9		고졸	339	46.2	384	52.0
학년	중 1	150	19.9		대졸	281	41.8	127	17.0
	중 2	205	27.2	부모의 직업	전문직	28	4.0	1	1.0
	고 1	184	24.5		교사, 간호사	16	2.3	9	1.2
	고 2	214	28.4		기업체간부	201	28.5	12	1.6
종교	없다	246	32.7		회사원, 공무원	179	25.4	38	5.2
	불교	111	14.7	서어비스직	139	19.7	97	13.2	
	기독교	289	38.4	기타/가정주부	135	19.1	543	74.1	
	천주교	98	13.0	무직	7	1.0	27	3.7	
	기타	10	1.3						

* 무응답에 따라 변인마다 사례수에 차이가 있음

본 연구의 조사는 1993년 11월 10일에서 1994년 1월 15일에 걸쳐 연구자 2명과 연구보조원 3명이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A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등을 사용하였다. 각 도구의 요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요인 분석과 직교회전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하였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Cronbach의 내적합치도계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인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을 발견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처전략의 연령과 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2인 청소년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5가지 대처전략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청소년 753명 중 남학생이 445명이며 여학생 308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중학생이 355명(중1년생, 150명; 중2년생, 205명)이며 고등학생이 398명(고1년생, 184명; 고2년생, 214명)이다. 종교를 가진 청소년은 전체의 67%이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의 69%, 아버지의 88% 이상이 고졸이상이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 및 간부가 60%이며, 서비스직이 20%이다. 어머니는 26%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

상 부모의 직업과 학력을 보면 중류층에 속한다.

2.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

청소년들이 어려움이나 긴장에 대처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개정한 F-COPE 27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한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였다. SCREE 검사를 통해 요인의 수를 파악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친척/이웃의 도움(요인 I, 9문항), 가족의 도움(요인 II, 4문항), 스스로 해결(요인 III,

<표 2> 대처전략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변 인	친척/이웃의 도움	가족의 도움	스스로 해결	친구의 도움	종교적 도움	h2
이웃에게 도움 요청	0.71	0.20	0.02	0.09	0.03	0.56
이웃과 문제 이야기	0.66	0.13	-0.08	-0.02	0.11	0.48
전문가의 도움, 상담	0.64	0.04	-0.04	0.02	0.06	0.42
지역사회기관의 도움	0.64	-0.02	-0.09	0.04	0.08	0.43
이웃의 도움이나 협조	0.20	-0.01	0.15	0.08	0.08	0.40
학교선생님의 도움	0.48	0.30	0.02	0.09	0.01	0.33
친구들로부터의 조언	0.47	0.41	-0.01	0.03	0.00	0.39
친척들과 함께 도움	0.45	0.39	0.00	0.03	0.05	0.35
친척들과 상의	0.40	0.38	-0.07	0.02	0.03	0.31
가족들과의 상의	0.14	0.79	-0.01	0.05	0.09	0.65
아버지에게 도움 요청	0.25	0.71	0.00	-0.01	0.04	0.56
어머니에게 도움 요청	0.09	0.70	0.06	0.06	0.07	0.51
형제들과 상의	0.13	0.43	-0.02	0.16	0.07	0.23
스스로 해결하려고	-0.07	0.01	0.68	-0.02	-0.07	0.47
인생경험으로 생각	-0.01	0.04	0.61	0.17	0.15	0.42
스스로 해결	-0.07	-0.04	0.59	-0.19	-0.13	0.40
해결의 힘이 있다고	0.06	0.03	0.50	0.01	-0.14	0.27
겪어야 하는 일로 수용	-0.00	-0.08	0.48	0.07	0.16	0.27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	-0.10	0.02	0.48	0.09	0.15	0.27
친구에게 의논, 도움	0.08	0.10	0.04	0.79	0.06	0.64
친한 친구와 상의	0.08	0.07	0.06	0.79	0.05	0.64
경험 공유자에게 도움	0.28	0.12	0.08	0.30	0.16	0.21
예배나 미사에 참여	0.12	0.05	0.02	0.08	0.65	0.45
신에게 기도	0.03	0.09	0.10	0.06	0.64	0.43
목사나 신부에게 도움	0.40	0.15	-0.09	0.01	0.49	0.43
아이겐값	4.82	2.05	1.37	1.27	0.97	
설명변량	0.48	0.20	0.14	0.13	0.05	
누가변량	0.48	0.68	0.82	0.95	0.99	

6문항), 친구의 도움(요인 IV, 3문항), 종교적 도움(요인 V, 3문항)의 5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다섯요인이 전체의 99%의 변량을 설명한다.

청소년들의 성과 학년에 따른 대처방안의 차이를 보기 위한 이원변량분석의 결과, 집단과 성의 상호작용은 없으며 주효과만 나타났다. 변량분석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대처전략의 변량분석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가족의 도움	친구의 도움	친척/이웃의 도움	스스로 해결	종교적 도움
남	10.7 A (3.88)*	8.2 A (2.56)	13.6 A (4.60)	21.0 A (4.08)	5.8 A (2.93)
여	10.6 A (3.67)	9.4 B (2.34)	13.4 A (4.91)	21.0 A (3.72)	7.2 B (3.07)
F값	0.29	42.7**	0.01	0.32	43.5**

* () 안은 표준편차 **p<.001

<표 4>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대처전략의 변량분석결과: 평균과 표준편차

	가족의 도움	친구의 도움	친척/이웃의 도움	스스로 해결	종교적 도움
중1	12.2 A (3.91)*	8.8 A (2.48)	16.2 A (6.49)	20.2 A (4.12)	6.8 A (3.02)
중2	10.8 B (3.89)	8.5 A (2.64)	14.0 B (4.20)	20.3 A (4.24)	6.7 A (3.30)
고1	10.2 B (3.71)	8.7 A (2.63)	12.2 C (3.48)	21.7 B (3.74)	6.3 B (3.07)
고2	9.8 C (3.36)	8.7 A (2.46)	12.4 C (3.77)	21.7 B (3.45)	5.9 B (2.8)
F값	12.6***	0.58	26.9***	8.2***	3.3**

* () 안은 표준편차 **p<.01 ***p<.001

<표 3>에 의하면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의 도움(F=41.5, p<.001)과 종교적 도움(F=39.5, p<.001)을 많이 구하였으나, 친척/이웃의 도움, 스스로 해결, 가족의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에는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표 4>에 의하면, 친구의 도움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가족의 도움은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고등학교 2학년은 최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2.6, p<.001).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F=8.1, p<.001)은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많이 이용한 반면, 종교적인 도움(F=4.6, p<.01)은 고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적게 이용하였다. 또한 친척/이웃에 도움을 청하는 방식(F=27.4, p<.001)은 중학교 1학년이 가장 많이 이용하였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친척/이웃의 도움을 덜 받았다.

3. 청소년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본 연구에서는 각 대처전략에 대한 가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앞의 연구문제에서 의의있게 나온 학년과 성, 가족의 구조적 특성인 어머니의 직업과 종교를 통제변인으로 하여 가족변인인 가족의 응집력,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 청소년의 자아중존감,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정도 등이 대처전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우선 통제변인을 모델1에서 분석하고, 준거변인들과 통제변인을 함께 모델2에서 분석하였다.

독립변인 및 종속변인들간의 상관계수와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부록>과 같다. 각 독립변인들과 다섯개의 종속변인(대처전략유형)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5>, <표 6>, <표 7>,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청소년들의 가족의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의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b	β	p	b	β	p
종교유무(종교=1)	0.44	0.05		-.01	-.00	
어머니 직업유무(직업=1)	-.82	-.10	**	-.49	-.06	
학년	-.66	-.19	***	-.48	-.14	***
성(여=0)	-.07	-.01		-.32	-.04	
아버지와 부정적 대화				-.12	-.09	*
아버지와 긍정적 대화				.06	.15	***
어머니와 긍정적 대화				.11	.27	***
어머니와 부정적 대화				-.05	-.04	
자아존중감				.00	.01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00	-.01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07	.20	***
절편		12.2			6.78	
R ²		.05***			.33***	
R ² 증가량					.28***	

*p<.05 **p<.01 ***p<.001

〈표 5〉에 의하면, 통제변인들(모델 1)은 가족의 도움의 5% 변량을 설명한다. 이 중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청소년의 학년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으며, 어머니가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와, 학년이 낮은 청소년일 수록 가족의 도움을 많이 이용하였다. 가족변인을 포함한 모델 2에서 독립변인들은 28%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여, 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에 가족변인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은 아버지와 부정적 대화가 적을수록, 부모와 긍정적 대화가 많을수록 가족의 도움을 많이 이용하였다. 또한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은 가족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중 어머니와의 긍정적인 대화($\beta=.27$)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beta=.20$)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과 주위환

경에 대한 만족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학년은 모델 2에서 영향력이 감소($b=-.48$) 하였으나 여전히 가족의 도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그러나 모델 1에서 의미 있게 나타난 어머니의 직업유무의 효과는 부모와의 상호관계를 모델 2에서 통제했을 때 그 효과가 사라졌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직업을 가지고 있어 시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청소년과 어떠한 대화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의하면, 통제변인들(모델 1)은 동료들의 도움에 대한 대처전략 변량의 7%를 설명하였다. 이 중 종교유무와 청소년의 성은 통계적으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모델 2에서 새로 추가한 독립변인들은 의의있는 변량의 증가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은 가족의 여러 특성보다는 청소년의 성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친구의 도움을 많이 이용하며 동료관계가 중요한 사회지지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청소년의 친구의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의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b	β	p	b	β	p
종교유무(종교=1)	.10	0.02	***	.12	.02	
어머니 직업유무(직업=1)	-.30	-.05		-.26	-.04	
학년	-.04	-.02		.08	.03	
성(여=0)	-1.31	-.25	***	-1.44	-.27	***
아버지와 긍정적 대화				-0.01	-0.01	
아버지와 부정적 대화				.02	.07	
어머니와 부정적 대화				.00	.01	
어머니와 긍정적 대화				-.03	-.03	
자아존중감				-.01	-.06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02	.06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01	.04	
절편		9.54			9.30	
R ²		.07***			.09***	
R ² 증가량					.02	

*p<.05 **p<.01 ***p<.001

〈표 7〉 청소년의 친척 이웃의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의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b	β	p	b	β	p
종교유무(종교=1)	.15	.02		-.04	-.00	
어머니 직업유무(직업=1)	-.11	-.01		.03	.00	
학년	-1.34	-.32	***	-1.12	-.27	***
성(여=0)	-.11	-.01		-.29	-.03	
아버지와 긍정적 대화				-.05	-.03	
아버지와 부정적 대화				.05	.10	*
어머니와 부정적 대화				.03	.05	
어머니와 긍정적 대화				-.14	-.09	
자아존중감				-.01	-.01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02	.05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08	.19	**
절편		17.03			14.02	
R ²		.10***			.20***	
R ² 증가량					.10**	

*p<.05 **p<.01 ***p<.001

〈표 7〉에 의하면, 모델 1에서 통제변인들 친척/이웃을 통한 대처전략 변량의 10%를 설명하였다. 가족변인을 포함한 모델 2에서는 가족변인들이 10%의 변량을 추가로 설명하였다. 청소년의 학년, 아버지와의 부정적 대화와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친척·이웃의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은 학년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부정적인 대화가 많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친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중 학년($\beta = -.27$)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 8〉 청소년의 스스로 해결하는 대처전략의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b	β	p	b	β	p
종교유무(종교=1)	-.44	-.05		-.76	-.09	*
어머니 직업유무(직업=1)	-.60	-.07		-.29	-.03	
학년	.54	.15	**	.48	.13	**
성(여=0)	-.17	-.02		.07	.01	
아버지와 긍정적 대화				.12	.08	
아버지와 부정적 대화				-.03	-.07	
어머니와 부정적 대화				.00	.00	
어머니와 긍정적 대화				.01	.01	
자아존중감				.06	.16	**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02	-.05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06	.16	**
절편		20.12***			10.97***	
R ²		.03**			.08***	
R ² 증가량					.05**	

*p<.05 **p<.01 ***p<.001

〈표 8〉에 의하면, 통제변인들은 전체변량의 3%를 설명하며, 모델 2에서 가족변인들을 추가하였을때 5%의 변량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청소년의 종교유무, 학년, 자아존중감과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은 청소년의 스스로 해결하는 대처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종교가 없거나, 학년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방식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중 자존감($\beta =$.

16)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beta = .16$)이 스스로 해결하는 대처전략에 가장 중요한 변인이다. 특히 여러가지 대처전략 중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에서만 유의있는 영향을 미친다.

〈표 9〉에 의하면, 통제변인은 종교적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의 27%의 변량을 설명하며, 종교유무와 청소년의 성은 유의있는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족적변인과 청소년 특성인 자아존중감

은 종교적인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통한 대처전략은 종교를 가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였으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많이 이용하였다. 그

럼으로 종교를 가진 청소년이 어려움이나 긴장을 경험할 때, 종교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망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표 9〉 청소년기의 종교적 도움을 통한 대처전략의 회귀분석

	모델 1			모델 2		
	b	β	p	b	β	p
종교유무(종교=1)	3.05	.47	***	3.08	.48	***
어머니 직업유무(직업=1)	0.00	.00		-.04	-.00	
학년	-.18	-.06		-.16	-.06	
성(여=0)	-.91	-.15	***	-.86	-.14	**
아버지와 긍정적 대화				.02	.02	
아버지와 부정적 대화				.01	.03	
어머니와 부정적 대화				.00	.01	
어머니와 긍정적 대화				-.05	-.05	
자아존중감				-.01	-.04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00	.01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02	.07	
절편		5.34			5.40	
R ²		.27***			.29***	
R ² 증가량					.02	

*p<.05 **p<.01 ***p<.001

V. 논 의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전략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연구방법론적, 실제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어려움이나 긴장에 대처하는 문제해결방식은 가족의 도움, 친척/이웃의 도움, 스스로 해결, 친구의 도움, 종교적 도움의 5가지로 구분되었다. 대처전략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의 도움, 친척/이웃의 도움.

스스로 해결, 종교적 도움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로 학년이 낮을수록 가족, 이웃, 종교적 도움을 많이 이용한 반면, 고등학생은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대처전략에서 친구의 도움과 종교의 도움은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이용하였다.

청소년의 긴장시 대처전략은 모든 청소년 집단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을 많이 이용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 친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이 문제해결시 가족과 친

구가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회귀 분석에서도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이나, 가족에 대한 도움 모두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중요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적용에는 가족이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발달에 가족의 영향력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있었다. Vaillant(Newman, 1979, 재인용)은 청소년이 성숙한 방어보다는 미성숙한 방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과 가족의 도움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전하며 적절한 전략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와 미국문화와의 차이의 일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대처전략에서도 친구의 도움을 제외하고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아 윤진과 최정훈(1989)의 연구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조작적인 정의에 따른 차이 또는 대상 연령의 차이, 또는 대부분의 청소년 연구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간과한 때문에서 나온 차이 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본연구에서 사용한 대처전략의 측정도구 중 동료관계에서 오는 긴장($\alpha=.60$), 외모로 인한 긴장($\alpha=.59$), 학업에 관한 긴장($\alpha=.60$) 척도의 신뢰도 계수가 다소 낮은것도 이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 결과는 중3과 고3을 제외한 결과이므로 전환기 과정에서의 영향을 유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적 현실을 감안할 때 입시는 청소년 혼자만의 문제라기 보다 중요한 가족적 사회적인 사건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가능하다면 중3년생과

고3년생도 포함시켜 연구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다. 이러한 제한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매우 다양한 문제해결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발달에 가족은 매우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긴장이 많은 청소년들의 대처전략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청소년을 둔 가정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서 이 점을 강조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긴장원에 대한 청소년의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처전략의 유형에 따라 관련 변인이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가족의 도움은 청소년의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긍정적인 대화가 많을수록,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많이 이용하였다. 친구의 도움은 여아가 남아보다 많이 이용하였으며, 가족 변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친척/이웃의 도움은 학년이 낮을수록 많이 이용하였으며, 아버지와 부정적 대화가 많을수록 친척/이웃의 도움을 많이 구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은 종교가 없는 청소년과, 학년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많이 사용하였다. 종교적 도움은 종교가 있는 청소년과 여아가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처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과 개인적 자원을 살펴 보았다. 개인적 자원으로 조작화한 청소년의 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주위 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청소년의 자존감이 영향을 미쳤으나 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개인적 자원의 영향력이 적다기 보다는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서의 자원, 즉 친한 친구의 수, 의미있는 타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만 정확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추후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망(social sup-

port)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IV.참 고 문 헌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 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애순, 윤진(1987). 성인기의 연령 증가와 상황 평가에 따른 대처 행동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6(1), 1-9.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송성자, 정문자(1994). 경험적 가족 치료: Satir 이론과 기법. 서울: 중앙적성 출판사.
- 윤유경.(1990). 아동의 스트레스 대응양상의 발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윤진, 최정훈(1989). 청년기의 정신건강문제와 그 대처 행동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2(1), 16-35.
- 이정우, 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유형 및 만족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9.
-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귀연, 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가족 적응성 및 가족체계 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57-173.
- 정명희(198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문제 행동과의 관계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nd, E. B., & Weisz, J. R. (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24(2), 247-253.
- Barnes, H., & Olson, D. (1982). Adolescent-parent communication.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 esteem. San Fransisco, C.A.: Freeman.
- Gecas, V., & Seff, M. A. (1990). Families and adolescent: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41-958.
- Grotevant, H. D., & Cooper, C. R. (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explor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Hurlock, E. B.(1973). Child Development. Tokyo: McGraw-Hill Kogakusha, Ltd.
- Leigh, G., & Peterson, G. (1986). Adolescent in family relationships. In G. Leigh & G. Peterson(Eds.), Adolescents(pp. 2-11). Cincinnati: South-Western Pub.
- McCubbin, H., Olson, D., & Larson, A. (1982).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 F-COPE.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 Patterson, G. (1986). Adolescent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A normative family perspective.

- In G. Leigh & G. Peterson (Eds.), Adolescents(pp. 256-276). Cincinnati: South-Western Pub.
- Newman, B. M. (1979). Coping and adaptation in adolescence. Human Development, 22, 255-262.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Harvard University Press.
- Noller, P., & Callan, V. (1990).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nature of their communication with par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9, 349-362.
- Olson, D., & Barnes, H.(1982). Quality of life.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Porter, J., & Bell, R. (1982).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Scales II :FACES II. In D. Olson (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University of Minnesota.
- Oi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Oi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1983).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VI.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69-83.
- Preto, N. G. (1989). Transformation of the family system in adolescence. In B. Carter & M. McGoldrick (Eds.),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pp. 255-270). Boston:Allyn and Bacon.
- Pearlin, L. I., Menaghan, E. G., Lieberman, M. A. & Mullan, J. T. (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337-35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부 록

〈부록〉 상관계수표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어머니의 직업유무	1.00	.00	0.00	-.05	-.05	-.07	-.00	-.05	-.07	-.05	-.03	-.05	-.06	-.05
(2)종교유무		1.00	.49***	.08*	-.07	.08*	.06	.06	.07	.10**	.04	.03*	.01	.07
(3)종교의 도움			1.00	.21***	.02	.20***	.26***	.01	.08*	.10**	.03*	-.01	.02	.11**
(4)동료의 도움				1.00	.11**	.23***	.26***	.01	.10*	.09*	.02	-.00	.05	.12***
(5)스스로 해결					1.00	-.00	-.07	.12**	-.01	.06	.06	.16***	.02	.09**
(6)가족의 도움						1.00	.47***	-.17***	.45***	.47***	.02	.20***	.31***	.50***
(7)친척·이웃의 도움							1.00	-.15***	.34***	.26***	-.02	.14***	.26***	.34***
(8)아버지와 부정적 대화								1.00	-.15***	-.03	.50***	.01	-.06	-.20***
(9)아버지와 긍정적 대화									1.00	.46***	.09*	.30***	.44***	.64***
(10)어머니와 긍정적 대화										1.00	.19***	.32***	.39***	.59***
(11)어머니와 부정적 대화											1.00	.17***	.12***	.06
(12)자아존중감												1.00	.43***	.37***
(13)주위환경에 대한 만족도													1.00	.48***
(14)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1.00
평균	.26	.67	6.41	8.68	21.02	10.66	13.54	28.40	33.56	40.14	28.22	71.08	47.34	50.81
표준편차	.44	.47	3.06	2.56	3.93	3.79	4.73	2.86	9.14	8.94	2.89	10.02	9.65	10.70

*p<.05 **p<.01 ***p<.001